



모바일로도 동행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동행

## 동행플러스

복음의 나팔수 존 녹스 - 김명희 권사

## 신앙의 유산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 - 안남수 은퇴장로

## 그리스도인의 향기

화요직장인 예배 - 이숙영 은퇴권사



**PASSION**

영은, 열정을 더하다

2026 BASIC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은교회

## “단지 가려져 있을 뿐”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가려져 있을 뿐이지요.

어둠이 걷히면

환한 세상이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미 7:8)

사진 | 함영선 · 글 | 서현이 집사



늘푸른학교 남이섬 나들이

## 월간 동행 영은 영상홍보부

창간일 1986년 4월 27일

발행일 2026년 11월 1일

발행처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61 영은교회

02-2676-7171~2

발행인 이승구 목사

지도목사 최광주 목사

편집인 최윤호 장로

편집차장 김명희 권사 김창원 안수집사

편집 김경원B 김명희 김창원 김한욱

윤정림 이숙경

기자 김명희 김재원 나영 서현이

송경란 윤정림 이숙경 이종은

사진기자 허영준

디자인 인스피릿디자인 김경미

월간 동행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삶과  
간증을 나누는 교회 소식지입니다.

영은교회 창립: 주후 1960. 04. 24.

## 월간『동행』과 웹진 동행

월간『동행』과 교회의 또 다른 소식을  
교회 홈페이지와 YES앱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 CONTENTS

- 02 **그림이 있는 풍경** | 단지 가려져 있을 뿐 서현이 집사
- 04 **생명의 말씀** | Innovate에 열정을 더하다 이승구 목사
- 08 **그리스도인의 향기** | 기도로 세운 화요직장인예배 이숙영 은퇴권사
- 10 **동행플러스** | 복음의나팔수 존 녹스 김명희 권사
- 13 **구역식탁** |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요 강수경 집사
- 15 **신앙의 유산** |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남수 은퇴장로
- 18 **소식&나눔** | 갈렙남성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 김재원 집사
  - | 가을빛 물든 남이섬 나들이 윤정환 협동권사
  - | 응급의료대응팀 공식 발족 오신원 안수집사
  - | 영은설악동산, 산골예식거행 김대성 안수집사
  - | 2여전도회 가을 야유회 백정란 권사
  - | 더블리스 챔버과이어 순회연주 채수범 집사
  - | 미아발생 양양덕 전임은퇴권사
- 25 **청년마당** | 복음을 남기고, 복음을 얻고 돌아왔다 주세훈 청년
  - | 말레이시아 단기선교, 말러뷰 흥은희 성도
- 27 **선교현장** | 시린 마음을 덮어주신 은혜 안웅현 목사
- 29 **슬기로운 교회생활** | 새가족을 대하는 지혜 장미애 목사
- 30 **생활노트** | 주일엔 교회로, 주말엔 박물관으로 이기현 집사
- 32 **뒤표지** | 11월 목회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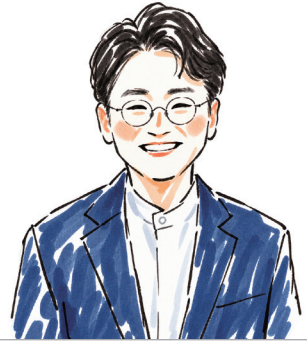
## 성도님들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영은 성도들과 함께 나누거나 알리고 싶은 소식을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편집  
회의 검토 후 월간 동행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간동행 이메일 yemagazine@naver.com]

# Innovate에 열정을 더하다

[눅 5:37-38]



이승구 담임목사

2년 전 요한복음 1장 말씀으로 ‘Innovate 영은, 혁신하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었습니다. ‘나의 신념’이 무너지고 ‘인식의 심화’를 거쳐 ‘참된 변화’로 나아가는 영적 혁신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영적 혁신은 한 번의 깨달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내 신념이 무너지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며,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면 이제 그 변화를 지속하고 삶으로 살아 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혁신이 변화의 방향을 제시한다면, 열정은 그 변화를 실제 삶으로 이끌어 가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Innovate에 열정을 더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 1. 새 포도주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새 포도주를 낚은 가족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눅 5:37)

새 포도주는 그 안에서 효모가 치열하게 살아 숨 쉬며 끊임없이 가스를 뿜어냅니다. 겉보기에는 붉은 즙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도무지 가두어 둘 수 없는 폭발적인 ‘생명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끓어오르는 새 포도주의 특성을 ‘복음의 특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은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고, 식어버린 가슴에 거룩한 불을 지피며, 우리의 자아를 흔들어 깨우는 폭발적인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



설교 영상보기

어 전될 수 없는 갈망, 절망과 어둠 속에서 울고 있는 이웃을 향해 가슴이 찢어지는 공허의 마음.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만들어 내는 거룩한 열정, ‘새 포도주의 열정’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 혁신은 지적인 동의나 형식적인 프로그램의 개편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다시금 ‘새 포도주의 끓어오르는 열정’이 회복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식어버린 마음에 성령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타성에 젖은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 점잖은 체념과 종교적인 게으름을 걷어내십시오. 그리하여 복음의 역동적인 생명력을 품는 새 포도주의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진정한 영적 혁신의 사람들로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 2. 낡은 부대를 깨뜨리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눅 5:37)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었을 때 벌어질 끔찍한 결과를 경고하십니다. 부대가 찢어져 회복 불능이 되고, 그 안에 담긴 귀한 포도주도 땅바닥에 모조리 쏟아져 버리는 ‘파국’입니다. 여기서 ‘낡은 가죽 부대’는 세월의 흐름 속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나의 과거 경험과 익숙한 타성을 의미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부드러운 마음은 연수가 쌓여갈수록 햇볕에 바짝 말라비틀어진 낡은 가죽처럼 굳어져 갑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이 오늘을 가로막는 우상이 되고, 내가 익숙하게 여겨온 종교적 관습과 습관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거절하는 단단한 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Innovate에 열정을 더한다’라는 것은 낡은 부대를 깨뜨리는 열정을 말합니다. 단순히 과거를 버리는 일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위해 나 자신을 새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혁신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새롭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낡은 가죽 부대처럼 금세 터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낡은 부대를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경험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물론 과거의 경험과 은혜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렇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오늘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은혜에 감사하되, 과거의 방식에 갇히지 마십시오. 지금까지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되,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낡은 부대를 깨뜨리는 열정’입니다.

### 3. 새 부대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눅 5:38)

새 가죽 부대가 가진 특징은 바로 ‘유연성과 신축성’입니다. 기름이 듬뿍 발라져 촉촉하고 부드러운 부대는 포도주가 발효되어 팽창할 때 그 압력을 거뜰히 이겨냅니다. 자신의 형태를 고집하며 버티기보다 새 포도주의 역동적인 생명력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맞추어 함께 늘어납니다. 이와 같이 새 부대의 열정이란 주의 일하심에 나를 맞추는 유연성을 의미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성령의 새로운 인도하심 앞에서 자기를 고집하지 않고, 가장 부드럽고 유연하게 자기를 맞춥니다.



그런데 새 부대도 내버려 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 마르고 굳어져서 ‘낡은 부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죽 부대가 계속해서 부드러움과 신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름을 발라주듯이, 매 순간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점점 굳어지려는 마음을 회개의 눈물로 부드럽게 갈아엎는 ‘날마다의 갱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굳어버린 금그릇, 은그릇보다 비록 질그릇일지라도 성령의 손길에 기꺼이 빚어지는 ‘새 부대’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꺼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 Innovate에 열정을 더하다

*새 포도주의 열정으로 뜨거워지십시오!*

*낡은 부대를 깨뜨리는 열정을 가지십시오!*

*새 부대의 열정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적 혁신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열정으로 뜨거워지고, 과거의 타성을 넘어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꺼이 응답하며,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부어 주시는 새 포도주를 온전히 담아내고, 그 생명력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진정한 Innovate에 열정을 더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로 세운 화요직장인예배, 평생 이어갈 전도



**이숙영** 은퇴권사  
(전 화요직장인예배 팀장, 현 전도폭발훈련교사)

저는 결혼 후 같은 아파트 이웃의 섬김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 뒤에는 평생 기도로 살아오신 친정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믿음을 선택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영은교회에 등록한 뒤 1990년 초등부 교사로 10년간 섬겼고, 이후 오랫동안 새가족 양육교사로서 새가족을 맞이했습니다.

30여 년 전 전도폭발 5기 훈련생으로 참여해 지금까지 훈련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변화된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마음속 열등감이 치유되고 자존감이 회복되면서 표정과 말, 태도가 밝아졌습니다. 복음 안에서 제가 귀하고 소중한 사람임을 깨닫자,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전도는 거절의 연속이지만 그 시간은 제 속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랜 세월 전도 현장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을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군부대 방문, 전도폭발훈련

“내가 사는 것이고, 내 영이 사는 것이니까요.”

## 눈물의 기도로 함께 세운 화요직장인예배

2024년 4월 1일, 평일에 교회를 찾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한 <화요직장인예배>가 시작되었고, 저는 초대 팀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정성훈 목사님과 홍보팀, 노방전도팀, 안내팀, 찬양팀, 행정팀, 식당팀 동역자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가 ‘함께 세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40분부터 30분 가량 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함께 나눕니다.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는 것은 하나의 도전이었으나, 그 자리마다 동역자들의 눈물의 기도와 수고가 있었습니다. 예배에는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온 회사 대표, 신앙이 없던 분, 신앙을 떠났던 분, 회사에서 신앙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다 처음 마음을 나눈 직장인들이 예배 자리에 앉았고, 교회에 등록한 분들도 생겼습니다. 기도로 준비한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누군가에게 복음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사역의 길이 늘 평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힘들 때마다 기도에 매달렸고, 하나님께서 함께 아파

하고 계신다는 마음을 얻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가장 은혜로웠습니다. 지칠 때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라,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시 37:5, 잠 26:3)라는 말씀을 붙들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 은퇴 이후에도 평생 이어갈 전도의 삶

제게 봉사는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며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봉사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꺼내지 못한 속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으며 아버지의 사랑과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봉사를 망설이는 성도들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생명 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하면 봉사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화요직장인예배

2025년 권사직에서 은퇴한 지금,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한 저를 불러 사용하신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전도를 평생 할 것입니다.” 이 고백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세 번 만나면 예수님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어느 노교수의 말처럼,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향기를 느끼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을 소망합니다.

##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복음의 나팔수 존 녹스



김명희 권사

올해 10월 31일은 종교개혁 509주년을 맞는 종교개혁 기념일이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성채 교회 문에 마르틴 루터가 본질로부터 떨어진 교회를 비판하는 ‘95개 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그 중심에는 ‘오직 성경’이 있었다. 독일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은 스위스의 츠빙글리와 칼뱅을 거쳐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로 이어졌다. 녹스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추진했고, 스코틀랜드를 장로교 기반의 개신교 국가로 탄생시킨 주역이 됐다.

존 녹스(John Knox, 1514~1572)는 1514년 어느 날 스코틀랜드의 해딩턴 혹은 근방 도시에서 출생했다. 녹스가 태어나던 시기에 스코틀랜드에는 강력한 중앙집권을 원하는 왕실과 왕실을 견제하려는 지방 귀족들 간의 권력 투쟁이 있었다. 땅을 소유하고 새로운 지배 계층으로 부상한 신사 계급은 정치와 경제의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신사들은 세습 귀족들의 위계질서와 결탁한 로마 가톨릭교회의 성직 위계 체계를 비판하며 자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교회 제도를 원했다. 이들은 종교개혁자들의 성경적 교리와 순수한 예배 형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위 성직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했다. 가톨릭교회는 심각한 부도덕에 빠졌고, 교구 목회에도 관심이 없었다. 이런 교회의 종교적 무능을 바라보며 스코틀랜드의 귀족들과 지식인들은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복음의 나팔수 존 녹스 (세인트앤드루스 성 박물관)

## 종교개혁가 해밀턴과 위사트의 순교

패트릭 해밀턴(Patrick Hamilton, 1504~1528)은 이신칭의와 성경의 절대 권위에 대해 설교하다가 이단 혐의로 체포되어 1528년 세인트앤드루스에서 화형됐다. 해밀턴의 순교는 스코틀랜드인들에게 가톨릭을 더욱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했다. 지식층은 물론이고 상인들과 광부들까지도 종교개혁자들을 옹호했다. 녹스는 해밀턴의 영향을 받은 종교개혁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며 부패한 로마 가톨릭교회에 주목했다. 그는 루터의 사상을 받아들인 개신교 귀족들과도 교제하며 종교개혁 사상을 심화시켰다.

녹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종교개혁자는 조지 위샤트(George Wishart, 1513~1546)다. 위샤트도 종교개혁 사상에 기초해 부패한 정치권력과 로마 가톨릭 교권을 비판했다. 그의 강력한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이 종교개혁 신앙으로 회심했다. 녹스 역시 회심자였다. 녹스는 1545년 초부터 여러 지역을 다니며 종교개혁의 당위성을 외치는 위샤트를 수행했다. 위샤트는 체포돼 가톨릭교회 추기경에게 넘겨졌고, 1546년 3월 1일 세인트앤드루스에서 순교했다. 그는 죽기 전 죽음을 지켜보던 녹스에게 “종교개혁의 일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다른 날을 기다려라. 희생은 나 하나로 족하다”라며 떠날 것을 재촉했다.

위샤트의 죽음 이후 성난 시민들은 추기경에 대해 분노했다. 1546년 5월 29일 무장한 귀족 몇 명이 추기경을 죽여 시신을 창문 밖에 걸었다. 귀족들과 시민들은 수비대를 만들어 세인트앤드루스 성을 함락시키고 가톨릭교회와 왕실에 저항했다. 이것은 종교개혁이 본격화되는 기폭제가 된다.

## 녹스, 복음의 나팔수가 되다

이후 녹스는 스코틀랜드의 종교적, 정치적 격랑을 겪는다. 1547년 녹스는 프랑스에 체포돼 19개월 동안 갇혀있는 노예가 된다. 1549년 초 녹스는 잉글랜드의 왕 에드워드 6세의 도움으로 적극적으로 석방되어 잉글랜드에 머물면서 순회 설교를 한다. 그러다 ‘피의 여왕’ 메리의 박해로 스위스 제네바로 망명하면서 칼뱅을 만나 종교개혁 운동에 동참한다. 녹스가 고국에 돌아온 것은 1559년 5월 2일이다. 녹스는 5월 11일, 퍼스의 세인트존스 교회에서 첫 설교를 한다. 그의 강력한 설교에 감동한 성도들은 성당과 수도원으로 달려가 성상을 산산 조각낸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기념일은 퍼스에서 성상 파괴 사건이 일어난 1559년 5월 11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날 녹스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우상 숭배를 강력히 비판하는 설교를 했다. 그의 설교

를 들은 시민들은 대성당의 미사를 중단시키고 수도원들을 공격하며 모든 우상의 기념물을 파괴했다. 녹스는 성상 파괴와 약탈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우상을 제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해석했다. 그가 원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성경의 진리와 순수한 예배를 회복하는 개혁이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포함되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본 것이다. 녹스는 이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나팔수'로서 복음을 전했다.

### 스코틀랜드, 최초의 장로교 국가가 되다

1559년 10월, 세인트앤드루스 교구는 녹스의 지도로 새로운 개신교 교회 제도를 도입했다. 장로



스코틀랜드 국기(예수 제자 안드레의 순교 십자가)

들과 집사들이 선출됐고, 교회 법정 혹은 당회가 세워졌다. 교회 개혁은 녹스가 제네바에서 칼뱅에게 배웠고 경험한 것이었다. 1560년 여름, 녹스는 에든버러의 세인트자일스 교회의 담임목사가 된다. 1560년 9월 에든버러 시의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미사 금지를 선언하고, 예배 중 상업적 행동을 금지하는 '주일 성수법'을 통과시킨다.

녹스를 비롯한 6인이 제출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는 1560년 8월 의회에서 공식 채택되어 공포된다. 이로써 스코틀랜드는 신앙고백이 장로교 제도를 표명하는 최초의 장로교 국가가 된다. 루터와 츠빙글리가 시작하고 칼뱅이 체계화를 시도했던 종교개혁은 '복음의 나팔수' 녹스를 통해 스코틀랜드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실현됐다.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제도는 이후 네덜란드 개혁교회와 잉글랜드 웨스트민스터 총회(1643~1649)를 통해 발전했고, 그 제도와 신학적 유산은 미국 장로교회를 거쳐 한국교회에까지 이른다. 녹스는 복음의 나팔수로서 위대한 과업을 이룬 후 1572년 11월 24일 하나님 품에 안겼다.



녹스가 담임 목사로 사역했던 에든버러 세인트자일스교회에 세워진 녹스 동상

#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요



강수경 집사  
(402구역)

## 따뜻한 선생님의 온기로 시작한 신앙생활

강수경 집사는 어린 시절 교회에 처음 갔던 기억을 떠올린다. 강 집사가 초등학교생일 때 경기도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혼자 갔는데, 이후 친한 친구와 함께 교회에 계속 다녔다. 그 시절 교회 학교 선생님은 일도 하고 벚넝농장도 운영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아이들을 자기 집에 데려가 손수 밥상을 차려 주시곤 했다. 어쩌면 성경 말씀보다도 그때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이 오래 남아서 그 온기가 강 집사를 계속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끈 것 같다. 결혼하면서 양평동으로 이사 오며 다섯 살 난 아들과 함께 집 근처 영은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가톨릭교 모태신앙인 남편은 복사(服事)를 서는 등 성당에 열심히 다녔다. 남편이 스무 살 때 집안 사정으로 부모가 외국으로 떠나며 고모 집에 홀로 남겨졌다. 고모네는 믿음이 없던 집안이였다. 었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적인 문제 등으

로 개인적인 상처가 쌓이게 되어 신앙생활을 아예 중단하고 말았다. 시부모는 강 집사 부부의 결혼식에도 못 오셨다. 남편과 시부모가 헤어진 지 15년 만에 비로소 만났다고 하니 남편이 홀로 견뎌온 고립감과 외로움이 꽤 컸을 것이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던 강 집사의 아들(지후)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맞은 코로나 시기에 사춘기를 겪으며 교회와 점점 멀어졌다. 딸(채운)은 두 살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이며 매주 교회학교에 출석하고 있다. 친정아버지는 강 집사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병환으로 병원에 1년간 입원한 게 계기가 되어 5년 동안 신앙생활 한 적이 있다.

## 내가 진정으로 믿고 있나?

강 집사는 코로나 시기에 세례를 받았다. 이후 집사가 되고 연이어 권찰이 되었다. 마음의 속도로 신앙의 중심으로 천천히 나아가고 싶던 차에 전도폭발훈련생이 되어 1단계를 수료했다. 복음을 제시할 때마다 훈련 대상자들로부터 신

양 고백을 듣는 동안 가슴 속 울림도 많았다. 그때마다 자신에게 신앙적인 질문을 던졌다. 하나님의 임재를 스스로 경험하지 못했기에 ‘내가 진정으로 믿고 있나? 참믿음으로 가고 있나? 거짓으로 하는 건 아닌가?’ 라고 물으며 번민했다. 지금도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답을 찾는 중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마 16:15)라는 성경 구절은 믿음에 대한 갈급함으로 기도하며 늘 새기는 말씀이다.

삶에서 다양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기도로 여쭙고 응답의 은혜를 느끼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맞겠지?’라는 의문이 든다. 하지만 가정 안에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힘들고 고민되는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을 때마다 조금씩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느낀다.

## 소망과 기대

강수경 집사는 남편과 아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와 참된 신앙생활 하기를 바란다. 친정 부모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현재 고3인 아들의 입시가 끝나면 청지기 사역을 맡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 주변에서 강 집사의 가족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이제는 강 집사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고 가족 모두의 신앙이 되어야 함을 마지막 목표로 정했다. 강 집사는 가정과 신앙생활의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강 집사는 권찰회 예배 후에 다른 권사들이나 집사들과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작년 권찰회 때 정성훈 교구 목사님의 말씀이 끝난 후 지역별 소그룹에서 그날의 말씀을 토대로 서로의 견해를 나누던 소중한 경험을 한 바 있다.

평소에 좋아하는 찬송은 「참 아름다워라」(478장)이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이라는 노랫말이 마음속 깊이 아름답게 울려 퍼진다. 특별히 마음에 새기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일 4:16)이다. 강 집사는 지금까지 자신이 일방적으로 주님을 사모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성경 구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을 깨달았다. 이제 참사랑을 알고 두려움 없이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말한다.

인터뷰·글 | 윤정림 기자



강수경 집사와 딸

# 지나온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남수 은퇴장로

영은교회에 등록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은퇴해 ‘신앙의 유산’이라는 글을 요청받고 보니 만감이 스쳐 지나갑니다.

저는 1952년생으로 전남 해남에서 부친 안금실 집사와 모친 김선심 권사의 4남 1녀 중 3남으로 태어나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서울에 올라와 1983년 1월 오귀진 은퇴권사님의 전도로 43년간 영은교회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영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찬양과 봉사로 채워주신 섬김의 기쁨

저는 여러 부서를 섬겼었습니다. 그중 새가족부 시절이 많이 떠오릅니다. 제 첫 등록 당시를 생각하며 새가족부에서 성도님들을 맞이할 때마다 초심을 돌아보곤 했습니다. 등록 과정부터 친절하고 반갑게 맞이하며 편안하게 정착하도록 도왔습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이 깊어지며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에 큰 보람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찬양대에서 15년 근속상을 받으며 20년 넘게 꾸준히 봉사했습니다. 음영부장과 영등포노회 찬양대연합회장으로서 제22회 영성합창제를 우리 교회 주관으로 성대하게 치러낸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과정에서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를 돕는 ‘새생명 새빛 캠페인’으로 500만 원의 기금을 모아 한국기독교공보 신문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노회 사회봉사부장으로 섬기며 실로암 안과병원에 ‘개안 수술비’를 전달했던 일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2014년 제



제 22회 영성합창제

23회 영성합창제 (목민교회주관) 이후 합창제가 지금까지 중단된 것입니다. 하루빨리 노회 차원에서 찬양대연합회 사업을 부활시켜 연합 찬양이 울려 퍼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원합니다.

4년 동안 맡았던 교육분과장 시기에는 교회학 교와 청년부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부흥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노회와 전국대회에서 성경고사, 찬양대, 위십 등의 부문에서 매년 최우수상을 받고, 3년 연속 우승기를 지켜냈던 시간은 교역자님들과 교사들의 열의 그리고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에 기도와 믿음이 더해진 결실이었습니다.

상례부장으로 섬긴 2년 동안은 시와 때를 알 수 없는 봉사로 인해 힘들기도 했지만, 부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과 유가족을 최선의 예로 모시며 참으로 값진 동행을 경험했습니다.

2019년 담임목사 청빙위원으로 제7대 이승구 담임목사님을 모시게 된 것 역시 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담임목사님을 청빙하여 얼마나 기쁘지 모릅니다.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워가며 지역과 함께 부흥·성장해 가기를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 뜨겁게 하나 되었던 전교인 수련회와 체육대회

2004년 8월, 연세대 원주캠퍼스에서 열린 제2회 영은 가족캠프(‘나가자! 성령과 기쁨으로’)는 지금도 가슴을 뛰게 합니다. 유아부부터 청장년까지 1,500여 성도들이 버스 30대와 승용차로 이동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고 체육대회로 교제하며, 마지막 밤 칠흑같이 어두운 운동장에서 불꽃놀이와 캠프파이어로 원주 밤하늘을 밝히던 추억은 온 성도들의 가슴속에 뜨거운 열정으로 남아 있으리라 믿습니다. 교회 출발부터 행사 중 이동, 그리고 교회 도착까지 안전을 책임지며 총괄 안내팀장으로서 팀원과 협력하여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행사를 마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원주 전교인 영은가족캠프

2017년 10월 한강 둔치에서 진행된 전교인 체육대회에서 우리 소망교구 식구들이 일치단결하여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 ‘우승 트로피’를 받았을 때의 열정이 지금도 느껴집니다. 함께했던 지난 시간이 너무나 그립고 소중한합니다.

## 교회 창립 50주년 희년, 임직 부부의 다짐

2010년 교회 창립 50주년 희년을 맞아 우리 부부가 장로와 권사로 임직되었을 때, 낮은 자리에서 더욱 열심히 섬기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김애자 권사와 저는 친인척도 거의 없는 영은교회에서 부부가 모두 임직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영은교회에 빚진 자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때 ‘영은교회를 떠날 수 없다’라고 한 약속을 지키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은퇴 후 에녹선교회 회장과 노회 장로회 산악회 회장으로 섬기며 100명의 회원과 소통하며 격월 산행을 통해 대자연 속에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제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나온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장로 임직식에서 가족과 함께

## 나의 신앙 고백

- ① 찬송가: 「내 영혼에 햇빛 비추니」 (428장)
- ② 성경구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막 9:23)

## 가족 사항

- ① 배우자: 김애자 은퇴권사
- ② 자녀: 1남 2녀(미현, 성현, 봉근)



김재원 집사

## 갈렘남성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

10월 4일 주일 오후예배 시간, 영은교회 본당에서 갈렘남성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가족’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2년 만에 열린 이번 정기연주회는 60세 이상의 남성들로 구성된 갈렘 남성합창단과 아동부 찬양대가 함께하며, 세대를 넘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고백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번 연주회는 지휘자 이한주 집사, 반주자 김수영 선생, 갈렘남성합창단 단원 35명이 합심하여 준비했다.

연주회 1부에서 합창단은 ‘참 좋으신 주님’,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를 찬양했다. 단원들의 깊고 힘 있는 목소리로 빛은 화음이 본당을 가득 채우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전했고, 성도들도 찬양의 가사를 마음에 새기며 은혜를 함께 나눴다.

1부와 2부 사이에는 아동부 찬양대의 특별 찬양이 있었다. 어린이들은 ‘우리는 왕의 자녀’와 ‘사랑해요 엄마 아빠’를 맑고 밝은 목소리로 찬양하며 연주회

에 따뜻한 분위기를 더했고, 성도들은 미소와 박수로 화답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마중’, ‘가족이라는 이름’,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 가족을 향한 사랑과 기도의 마음을 노래했다. 세월의 깊이가 묻어나는 단원들의 찬양은 부모와 자녀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되새기게 하며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2부 순서 후에 이어진 앙코르 무대에서는 아동부 찬양대와 갈렘남성합창단이 한 무대에 올라 함께 찬양하며 연주회의 대미를 특별하게 장식했다. 어린이들의 맑은 목소리와 갈렘남성합창단의 아름다운 화음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라는 이날의 주제를 아름답게 보여줬다. 성도들도 큰 박수로 화답하며 기쁨을 함께 나눴다.

2년 만에 개최한 정기연주회는 세대를 넘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나누고, 영은의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은혜를 나누게 했다.



- 늘푸른학교 -

## 가을빛 물든 남이섬 나들이



윤정한 협동권사

시월의 넷째 주 목요일, 늘푸른학교 어르신들과 교사들이 함께 춘천 남이섬으로 가을 나들이를 다녀왔다. 담임목사님의 기도로 시작된 나들이. 대형버스 네 대에 나누어 탄 160여 명에게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다. 가을 여행지답게 평일임에도 주차장은 관광버스로 붐볐다. 점심에는 춘천의 명물인 닭갈비를 맛있게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어 남이섬으로 건너가는 배에 오른 어르신들의 알록달록한 옷과 빨간 모자가 펼쳐지는 만국기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스토리 투어 버스(여행 이야기 버스)를 타고 섬을 한 바퀴 돌며 남이섬의 풍경과 이야기를 만났다. 여기저기서 어르신들의 감탄이 들려왔다.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남이섬의 역사와 이야기를 자세히 들을 수 있어 더욱 좋았다는 후기가 이어졌다. 앞서 도착한 교사들이 예약하고 준비해 둔 커피와 차를 마시며 자연 속

에서 잠시 여유를 즐기기도 했다. 걷기에 무리가 없는 분은 아름다운 산책길을 거닐며 사진으로 가을의 추억을 담았다. 아주 오래전 데이트하던 시절에 남이섬을 찾았다가 몇십 년 만에 다시 오셨다는 분들은 감회가 새롭다며 지난날의 추억을 들려주셨다.

앞으로도 늘푸른학교가 배움과 섬김,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로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늘푸른학교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한다. 이어지는 율동 시간에 몸과 마음을 깨우고, 찬양반·성경읽기반·두뇌반·아로마미술반·건강반·노래반으로 나뉘어 각자의 배움을 이어 간다. 내가 섬기는 노래반에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함께 노래하고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어르신들의 건강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럴 때마다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응급의료대응팀



오신원 안수집사

## 영은교회 응급의료대응팀 공식 발족

지난 8월 당회에서 응급의료대응팀 신설을 결의하고, 9월 20일에 1차 모임을 했다. 최근 주일예배 중 두 차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 대응 과정에 다소 혼선이 있었다. 이에 교회는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성도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응급의료대응팀을 발족했다.

응급의료대응팀은 전원 의료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팀장과 간사 그리고 간호사 자격을 갖춘 팀원들로 구성됐다. 정원준 안수집사가 간사를 맡아 팀의 연락과 행정 운영을 돕는다. 1차 모임에서는 응급의료대응 실행 지침을 발표하고,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 지침은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 김우권 장로는 교회와 당회에서 나온 발족 취지를 1차 모임에서 전하며 팀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예배부와 긴밀히 협력해 대처해야 한다. 전문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 예

배부 권사와 안수집사가 빠르게 상황을 파악해 응급의료대응팀에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등 초기 대응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역할과 절차를 익히게 할 계획이다. 더불어 심폐소생술(CPR)을 비롯한 기초 응급처치 교육과 훈련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자 한다.

앞으로 교회는 안수집사와 권사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구급 교육을 실시하고, 전 교인을 대상으로 가정과 직장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응급상황 대응에 관한 강의를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 분야에 자격이 있는 교인들을 추가로 영입해 팀의 전문성을 더욱 보강할 예정이다. 교회학교,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약 3,000명의 교인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한 응급의료대응 체계를 다져나갈 것이다. 응급의료대응팀에서 사역하고자 하는 성도는 예배부로 문의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김대성 안수집사  
(동산관리부)

## 영은설악동산, 올해 두 번째 산골예식 거행

영은교회 동산관리부는 지난 10월 17일, 영은설악 동산에서 4개의 봉안묘(안치 고인 4명)에 대한 산골예식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 7월 11일 5개의 봉안묘(안치 고인 8명)를 대상으로 진행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된 산골이다.

유골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산골(散骨)'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 3:19)라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초의 자연과 원형으로 돌아간다는 순종의 의미와 함께, 고인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신앙적 확신을 담고 있다.

현재 영은설악동산에는 허가 구역 430㎡ 내에 총 290기의 봉안묘가 조성됐다. 산골 조건은 다음과 같다. ▲봉안묘에 30년 이상 안장된 경우 ▲영은교회 교인으로서 봉안묘나 수목장 대신 산골을 희망하는 경우 ▲영은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자녀가 교인이고 교구 목사의 허락을 받은 경우

한편 봉안묘 및 수목장 안장 자격 기준은 ▲영은교회 등록 교인으로 3년 이상 경과하고 출석률이 연 2/3 이상 주일예배에 출석한 교인 ▲봉안묘 합장의 경우 부부 모두 앞선 조건에 해당하며, 기존 안치자

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영은교회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서 당회 결의를 받은 자 ▲원로목사, 위임목사, 영은교회 파송 선교사에 한한다.

교회는 향후 늘어날 장사(葬事) 수요에 대비해 가평군청으로부터 3,260㎡ 규모의 수목장 추가 승인을 이미 받았다. 지난 10월 2일 영은교회 정책위원회에서 수목장 조성 계획이 의결됐다. 이에 동산관리부는 2027년 상반기 중으로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위 내용은 2024년 개정된 영은설악동산관리 운영규칙을 기반으로 작성한 내용임.
- 문의 사항: 동산관리부





백정란 권사

## 기쁨과 웃음이 가득했던 2여전도회 가을 야유회

2026년 10월 17일, 2여전도회 20명은 설레는 마음을 안고 인천 무의도로 가을 야유회를 떠났다. 이번 야유회는 일상의 무거운 역할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며 기쁨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시간이었다. 엄마로, 아내로, 딸로, 며느리로 살아온 우리에게 이날만큼은 오롯이 ‘나’로 돌아가 마음껏 웃고 즐길 수 있는 선물 같은 하루였다.

교회 버스에 오르는 순간부터 웃음꽃이 피어났다. 부회장 윤정환 권사의 재치 있는 사회로 서로를 알아가는 이야기로 시작해 찬양, 성경 퀴즈가 이어졌다. 무의도에 도착한 회원들은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며 해변을 산책한 뒤, 본격적인 게임을 즐겼다. 신발 멀리 던지기에서는 신발보다 웃음이 더 멀리 날아갔고, 팀 대항 공 튀기기 게임에서는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몸짓에 서로 배꼽을 잡으며 웃었다. 서툰 모습마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다.

점심에는 메밀국수와 감자옹심이로 푸짐하게 식사하며 정을 나누었다. 이어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카페 정원에서는 로덤 상품권이 걸린 장기자랑과 다양한 게임

이 펼쳐졌다. 각자의 재능과 끼를 마음껏 발휘하며 서로를 응원하는 사이, 우리는 단순한 친목을 넘어 주님 안에서 더욱 깊이 사랑하고 하나 되는 기쁨을 누렸다.

이번 야유회가 더욱 특별했던 이유는 함께한 사람들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이다. 61세부터 65세까지, 인생의 계절은 어느덧 가을에 접어들었지만, 이날만큼은 모두가 소녀였다. 수십 장의 사진 속에는 아름다운 바다와 풍경보다 더 빛나는 우리의 환한 웃음이 담겼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함께 웃으며,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었다.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사랑과 감사가 이날 무의도의 바람처럼 우리 마음에 가득 스며들었다.

### 2027년도 2여전도회를 섬길 신임원

회장: 윤정환/ 부회장: 문인숙/ 총무: 박은래

서기: 윤화순/ 회계: 송경란/ 부회계: 김곡지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더 블리스 챔버콰이어 영은교회 순회연주를 마친 후 이승구 담임목사와 함께



**채수범** 집사  
(더 블리스 챔버콰이어 지휘자)

## 더 블리스 챔버콰이어 순회연주

10월 18일 주일 영은교회 오후예배 때 ‘더 블리스 챔버콰이어 영은교회 순회연주’가 있었습니다. 더 블리스 챔버콰이어(The Bliss Chamber Choir)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악적 달란트로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자 예수님과 합창 음악을 사랑하는 성악가들이 뜻을 모아 2026년 3월 창단한 선교합창단입니다.

‘블리스(Bliss)’는 더없는 행복과 기쁨을 의미하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찬양으로 나누고자 하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큰 사명으로 삼으며, 아름다운 화음 속에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전하고자 합니다.

감사하게도 영은교회에서 연습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매주 목요일 함께 모여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 창단 기념 연주회를 계획하는 것을 목표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찬양을 올려 드리기 위해 한마음으로 정진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노래가 지친 이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빛이 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와 지역사회를 넘어 찬양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기쁨으로 찾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소리로 복음의 기쁨과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더 블리스 챔버콰이어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세상 곳곳에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선교합창단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단원 소개

지휘자: 채수범 | 반주자: 나정민 | 단무장: 윤지후 |  
회계: 권빛나 | 서기: 유지혜

Soprano 강희주 | 권빛나 | 유지혜 | 이희원  
Alto 이 솔 | 이예인 | 조한솔 | 최수아  
Tenor 윤지후 | 이석진 | 하성재 | 현용호  
Bass 이승엽 | 이현우 | 정재민

## 미아 발생

양양덕 전입은퇴권사

세상에나

세 할머니가 버려졌다

그것도 낯선 땅 원한 공항에

조금 젊은 할머니 둘 높은 할머니 하나

비행기 사정으로

한 시간 반이나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베를린행 환승 비행기를 놓쳐버린 것이다

공항에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은데

딱 우리 세 사람만 있는 듯

머릿속은 텅 비어버리고

알랑한 영어 몇 마디도 버벅거린다

세 사람 얼굴은 반 사색이 되어

이리 물리고 저리 물리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다가

겨우 창구로 다가가

손짓 발짓 하소연을 했다

마지막 비행기로 두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자고 다음 날 가야 한다는 말에

우리는 거의 울상이 되어 주저앉았다

우여곡절 끝에 늦은 밤

우리는 베를린에 도착했고

내 수명은 십년 쯤 감소했다



츠빙글리 기념비 앞에서 종교개혁 그랜드투어 수료증을 들고  
(앞줄 오른쪽: 양양덕 권사)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힘없는 우리 세 사람만 남겨진 것 같았던

놀라움과 공포

머릿속이 하얘져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

시간에 쫓기느라 하나님을 잊었을까

무어라 변명도 못하고 그저 죄송합니다

정말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마바하 교회



주세훈 (청년2부)

## 복음을 남기고, 복음을 얻고 돌아왔다

— 말레이시아 단기선교팀 —

10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8박 9일간 교육3부 ‘더 누림’과 교육2부 ‘청년부’가 처음으로 연합하여 말레이시아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복음 들고 갑니다’라는 주제 아래, 구용희·백현이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쿠칭 땅에 김민식 목사(더누림), 진윤규 목사(청년1부), 박희자 은퇴권사, 강민관 집사와 25명의 청년이 함께했다.

첫 연합이었기에 어색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나이와 부서의 차이는 복음을 향한 열정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 더누림은 믿음의 선배로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고, 청년부는 뜨거운 열정으로 사역의 불을 지폈다. 서로의 장점은 세워주고 부족함은 감싸주었던 약 4개월의 준비 기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나의 교회로 세워가시는 시간이었다.

선교를 떠나기 전 김민식 목사님께서 “그곳에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얻고 돌아오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던져주셨다. 그 질문을 품고 첫 사역지인 티에스엠(TSM)교회(이하 TSM교회)에서 성찬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복음의 의미를 되새겼다. 항공권 문제로 진윤규 목사님과 청

년부 청년 3명은 후발대로 합류하게 됐다. 이들은 밤샘 이동으로 지친 몸이었지만, 도착하자마자 쉴 틈도 없이 워십과 스킷드라마, 특송을 기쁨으로 감당했다. 헌신적으로 섬겨준 청년부 팀원들과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TSM교회 청년들과의 교제로 새 힘을 얻은 우리는 다음 날 16시간의 차량 이동 끝에 우마바하에 도착했다. 그곳의 따뜻한 환대 속에 음식 사역과 복음팔찌 나눔, 어린이 사역과 찬양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쳤다. 마지막 사역지인 루복안뚜 에스엠케이(SMK) 학교에서는 멀리 이슬람교의 예배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문화 사역을 통해 전하며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모든 사역을 마치며 처음의 질문을 다시 떠올렸다.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얻었을까? 우리는 복음을 남기고, 복음을 얻고 돌아왔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났지만, 오히려 우리 안에 복음이 더욱 충만하고 선명해지는 은혜를 경험했다. 조율되지 않은 악기들을 거장의 손길로 아름답게 연주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말레이시아 단기선교, 말러뷰

## “말러뷰팀이 전하고자 한 것은 단 하나, ‘복음’이었습니다”



홍은희 성도 (더누림)

10월 2일에서 10일까지 8박 9일의 여정 동안 더누림과 청년부 연합 선교팀으로 꾸려진 ‘말러뷰 (MALLOVEU)’는 말레이시아 쿠칭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다. 현지 교회인 티에스엠(TSM) 교회에서 어린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을 만나 서로를 알아가는 활동을 한 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가 됐다.

12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이동해 도착한 우마바하에서 오전에는 잡채, 떡볶이, 김치를 현지 교회의 여전도회 회원들과 함께 만들며 음식을 통해 교제했다. 오후에는 팀별로 각 룽하우스(현지인이 거주하는 곳)를 방문해 복음 팔찌와 우리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 현지어로 번역하여 복음을 전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만나 다양한 활동과 레크리에이션도 하며 친밀하게 교제했다. 저녁에는 말러뷰팀과 현지 성도들이 준비한 다양한 찬양과 위십을 함께 나누며 찬양했다. 수요일 예배에 참석해 현지 교인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고 말씀듣고 기도했다.

우마바하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쿠칭으로 돌아오는 길에 방문한 에스엠케이(SMK, 현지 청소년 기숙사)에서는 많은 청소년에게 말러뷰팀이 준비한 문화 사역을 나누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매일 다양한 사역을 진행했지만, 말러뷰팀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 ‘복음’이었다. 말은 잘 통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처음으로 더누림과 청년부가 연합한 선교이자, 지금까지 있었던 단기선교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선교였다. 인원도 많고 부서도 다르고 연령대도 다르며, 준비하는 기간도 길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하나의 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다. 하지만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역을 말씀과 기도로 준비했다. 하나가 되기 위해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상처받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팀이 되어 은혜 가운데 선교를 다녀올 수 있었다.

# 시린 마음을 덮어주신 은혜



안웅현 목사  
(전주본교회)

2025년 3월 1일, 봄기운이 막 피어오르던 날이었습니다. 우리 ‘본교회’는 단 세 가정, 일곱 명의 식구와 함께 떨리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화려하거나 거창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만 봐도 온기가 전해지는 따뜻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교회의 기틀을 다져가며 2026년을 맞이합니다.

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섭법은 인간의 계산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텅 빈 것 같았던 그 자리에, 제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로 한국말도 서툰 타국의 유학생 청년들이었습니다.

한 명, 두 명, 다섯 명. 그리고 당장 다음 주일에 는 무려 열두 명의 유학생이 우리 본교회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설렘했던 예배당이 어느새 낯선 이국땅에서 온 청년들의 활기로 가득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부끄럽게도 이 벅찬 부흥의 소식 앞에서 제 안의 ‘알파한 인간적 본성’이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머릿속의 계산기가 다급하게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 당장 저 많은 인원을 태우려면 우리 차로는 턱없이 부족한데?’

‘한창 혈기 왕성하게 잘 먹을 청년들인



전주본교회 예배(10월 11일)

2026년의 시작은 제겐 너무나 춥고 시린 시간이었습니다. 개척 초기부터 함께 고생하며 교회를 세워왔던 한 가정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개척 교회에서 한 가정의 빈자리는 숫자 그 이상의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행해진 예배당 의자를 바라보며 남몰래 시린 마음을 부여잡고 한 해를 시작해야

데... 저 친구들 마음껏 배불리 먹일 고기랑 밥값은 또 어떡하지?’

믿음 없는 걱정과 현실적인 한숨이 제 입술 끝까지 차올랐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기도하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제 뒤통수를 ‘탁!’ 치시며 농담을 건네시는 것 같았습니다.

“왜? 감당하기 힘들어? 그럼 이제 그만 보낼까?”

저는 화들짝 놀라며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아니에요!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주시면 주시는 대로 다 받겠습니다! 차량이 부족하면 두 번, 세 번 돌면 되고요. 고기가 부족하면 제 몫을 양보해서라도 정성껏 섬기겠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혼자서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하며 인간의 알은 걱정을 단숨에 기쁨의 찬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본교회는 새로운 사명을 향해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갑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찾아온 이 귀한 청년들이 낯선 한국 땅에서 본교회를 통해 따뜻한 영적 고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을 본교회에 잘 정착하

게 하고, 그들의 마음에 십자가 복음이 깊이 심기어 반석 같은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섬기려 합니다.



10월 4일, 교회에 등록한 몽골 유학생들



10월 11일, 교회에 추가 등록한 몽골 유학생들

시린 마음으로 시작했던 2026년이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본교회가 이 귀한 영혼들을 넉넉히 품어내는 든든한 신앙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즐거운 사역을 지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의 친정인 영은교회 가족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영은교회(친정 식구들)의 기도가 우리 유학생 친구들을 먹이는 영적인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영은 가족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 새가족을 대하는 지혜

매 주일 많은 새가족이 우리 영은교회에 등록하고 있다. 교역자나 새가족부 혹은 관련 봉사자들만이 애쓴다고 새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성도가 사랑과 관심으로 새가족을 대해야 한다. 그렇다면 새가족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알아보자.



장미애 목사

## 1. 예의를 갖춰야 한다.

사람과의 만남에서 예의를 갖추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다. 예의는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인간관계를 계속 지속시키는 데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옷차림은 알맞게, 인사는 정중하게, 표정은 사랑과 온화하게, 언어는 상냥하고 친절하게 하며 경어를 사용해야 한다.

## 2. 새가족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대한다.

사람마다 믿음의 시기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분량도 제각각이다. 따라서 자신의 기준에서 획일적으로 대하지 않도록 한다.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 부담을 느끼거나 식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 3. 말하기보다 말하는 것을 듣는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은 대인관계에서 성공의 열쇠이다. 자신이 들은 내용이 상대방이

말한 내용과 맞는지를 확인하며 경청하는 것은 신뢰를 주기 때문이다.

## 4. 부정적인 것을 말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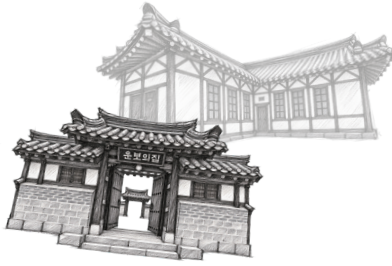
새가족과의 만남에서 부정적인 말을 절대 하면 안 된다. 그것이 교회에 관한 것이든 성도에 관한 것이든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는다.

## 5. 함께 나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뉘야 한다. 새가족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

## 6. 새가족의 사생활은 자세히 묻지 않는다.

새가족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보장받기를 원한다. 현대인의 삶에는 많은 변수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너무 자세히 물어보지 않도록 한다.



이기현 집사

## 주일엔 교회로, 주말엔 박물관으로 떠나볼까요?

### 1. 박물관은 언제 생겨났을까?

‘박물관(Museum)’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학문과 예술의 여신인 ‘뮤즈(Muse)’에게 헌납된 신전을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 ‘무세이온(그리스어: Μουσείον, 라틴 문자 표기: Mouseion)’에서 유래하였다. 역사상 가장 이른 시기에 등장한 박물관은 기원전 3세기에 이집트에 설립된 ‘무세이온 알렉산드리아(Mouseion of Alexandria)’이다. 이곳은 신전의 역할을 수행하며 동시에 각종 예술품과 서적을 수집 및 소장하고, 학자들이 문예와 철학을 연구하고 담소를 나누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우리나라 근대 박물관의 시작은 1909년 창경궁에 개관한 ‘제실박물관’이다. 이 박물관은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이왕가박물관’으로 명칭이 바뀐다. 이후 여러 차례 개편과 이전을 거쳐 1969년에 ‘국립박물관’에 통합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중앙박물관’은 1945년 개관한 ‘국립박물관’을 계승한 기관으로, 2005년 현재의 용산 지역으로 이전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 2. 박물관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

박물관은 단순히 오래된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다. 인류의 유·무형 유산을 수집·보존하고 조사·연구하며 전시와 교육을 제공해 그 유산의 가치를 사회와 공유하는 기관이다. 박물관들은 발굴조사, 구입, 기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설립 목적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한다. 이러한 활동으로 마련된 전시는 단순히 실물 자료를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닌 하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전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소장품의 역사적·예술적·문화적 가치를 설명하고, 관람객에게 새로운 지식과 감동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시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따라가며 유물을 감상하는 것이 박물관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 3. 가 볼 만한 박물관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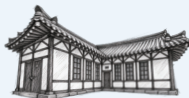
미술 전문 매체 『아트 뉴스페이퍼(The Art Newspaper)』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은 2025년 세계 박물관 관람객 수 순위에서 3위를 기록했다. K-문화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과 위상이 높아지는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준 뜨거운 K-신앙의 유산도 있다. 이번 가을, 복음의 역사와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 특별한 박물관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 ①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서울시 은평구 진관1로 94)은 2025년에 개관한 신생 박물관으로, 140년에 걸친 한국 기독교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한다. 비교적 최근의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전시품도 있어 기독교 역사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다. 가족과 함께 방문하면 서로의 신앙과 추억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 ②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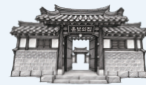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평로 214번길 10-13)은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한 향산 한영제 장로가 평생 수집한 교회

사 자료를 바탕으로 2001년 설립한 박물관이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현장인 장대현교회를 축소 복원한 공간과 도슨트(전문 안내원) 해설,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교회의 역사를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사전 예약 필수).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 ③ 윤보의 집



윤보의 집(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형동2길 92-41)은 윤보 김기창 화백(1913~2001)의 작품과 주거 공간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윤보 선생은 청각장애를 극복하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독창적인 화풍을 확립한 예술가이다. 특히 한복을 입은 예수와 한국의 산천이 배경인 ‘예수의 생애’ 연작(1952~1953)은 한국적인 시선으로 표현한 복음의 매력을 보여준다. 아름다운 한옥과 가을의 맑은 풍경까지 함께 즐길 수 있어 더욱 특별하다.

## 11월 목회일정

|                              |                                         |
|------------------------------|-----------------------------------------|
| 1일(주) 사랑의 주일, 북한선교주일, 정기제직회  | 22일(주) 임직예식, 10기 중보기도자 헌신 서약식(4부), 예산당회 |
| 8일(주) 사랑의 쌀 나누기, 교회봉사자 신청주일  | 24일(화) 9기 300기도용사 임명식                   |
| 9일(월)~14일(토) 가을 전가족 특별새벽기도회  | 25일(수) 성탄트리 점등식                         |
| 10일(화) 10기 중보기도자학교 종강        | 26일(목) 늘푸른학교 종강                         |
| 15일(주) 추수감사주일, 교구별 찬송경연대회    | 27일(금) 권찰회 종강                           |
| 17일(화) 장년신앙교육 종강, 중보기도 산상기도회 | 28일(토) 토요일학교 종강                         |
| 19일(목) 학부모 수능 기도회            | 29일(주) 대림절1, 새가족 환영의 날, 가족과 함께하는 오후예배   |

### 교회를 섬기는 분들

원로목사 | 허남기

담임목사 | 이승구

부목사 | 최광주 박대원 정성훈 한진구 신요한 김민식

이찬양 장미애 진윤규

전도사 | 김영락 김찬영 손예지

교육전도사 | 나진희 박선민 정희수 한수민 전성수 임현창

파송선교사 | 구용희 백현이

협동목사 | 소병찬 김규리

### 찾아오시는 길



### 예배시간 안내

| 구 분            |             | 시 간      | 장 소      |
|----------------|-------------|----------|----------|
| 주일예배           | 1부          | 오전 7:30  | 본당       |
|                | 2부          | 오전 9:00  |          |
|                | 3부          | 오전 11:00 |          |
|                | 4부          | 오후 1:30  |          |
| 오후예배           |             | 오후 3:30  |          |
| 수요일예배          |             | 오후 7:30  |          |
| 새벽기도회          |             | 매일 5:30  |          |
| 금요심야기도회        |             | 오후 8:30  |          |
| 화요직장인예배        |             | 오전 11:40 |          |
| 모임<br>시간<br>안내 | 젊은세대 더누림    | 오후 3:00  |          |
|                | 젊은부부 어울림 1부 | 오후 12:10 | 1층 어린이집  |
|                | 젊은부부 어울림 2부 | 오후 3:00  | 2층 세미나1실 |

### 교회학교 예배시간 안내

| 구분   | 시간        | 장소       |
|------|-----------|----------|
| 영아부  | 15개월-3세   | 1층 영아부실  |
| 유아부  | 4-5세      | 2층 유아부실  |
| 유치부  | 6-7세      | 2층 유치부실  |
| 유년부  | 초등 1-2학년  | 5층 유년부실  |
| 초등부  | 초등 3-4학년  | 5층 초등부실  |
| 소년부  | 초등 5-6학년  | 5층 소년부실  |
| 꿈자람부 | 4-13세     | 2층 유치부실  |
| 중등부  | 중학생       | 오전 11:00 |
| 고등부  | 고등학생      | 오전 9:00  |
| 청년부  | 34세 미만 청년 | 오후 1:30  |